

2021년 8월 기도제목

아다나의 여름을 지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섭씨 40도가 넘어가고 습도도 높아 무덥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다나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시원한 시골로 가서 3개월을 지내고 옵니다. 그래서 ○배에 참석하는 인원도 항상 줄어들고는 했는데 이번 여름은 다른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한 두개의 간단한 물품을 놓고 파는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전도했던 굴텐의 아들, 딸과 조카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여 관계를 쌓아가며 전도했던, 높은 교육을 받고 반듯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며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희의 초대를 여러 이유를 들어 번번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여름의 아스팔트 길 위에 보잘 것 없는 물품들을 놓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팔아보려고 애쓰는,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저희의 초대에 응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도 ○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사진: 이사온 동역자 부부도 있음).

그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초대한 손님들이 여러 이유로 잔치에 오지 않자 종들에게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명대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와서 혼인 잔치의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도 온갖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주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복된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면 모두 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랫동안 투병하던 굴텐 자매가 7월 31일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토가 있는 휠체어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빌려 타기에 그에게 부탁하여 8월 초에 사주기로 결정하고 즐겁게 혼자서 운전하며 다니게 했는데, 그것이 이 자매에게 주었던 저의 마지막 사랑의 선물이 되었네요. 얼마나 기뻐하며 행복했는지요. 이 땅에서 잠시나마 한 영혼을 기쁘게 해주었다는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슬픈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갔는데 친척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경 선생인줄 아는 몇 자매가 굴텐이 천국에 가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요청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굴텐에게 이런 기도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이미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4번이나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딸을 구원해주셨고 위로해주셨기 때문에 굴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었고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굴텐은 무슬림으로 죽은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딸로 자고있을 뿐이다." 그곳에 소동이 일어나 큰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굴텐이 아플 때 잘 찾아오지도 않았다. 왔었다라면 굴텐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꿈에 ㅇ수님을 만났다고 자주 간증했는데 못들어봤으니 말이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밖에 나와서 그곳에 있는 굴텐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큰소리로 물었습니다. “굴텐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걸 여러분도 다 들었지요?” 가족들 중에 몇 사람이 저에게 소리내어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맞다고, 예수님의 꿈 꾀것 맞다고, 굴텐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다!!!라고... 저의 ㄱ회 건물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기사님들도 듣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온통 제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반대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굴텐의 죽음이 슬픔이라기보다는 이곳에 문상하러 왔던 모든 이들에게 이 딸의 믿음을 간증하며 전도하는 집회가 되었습니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나를 보고 감사해하며 웃고 있는 굴텐과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듯 합니다. 주님, 저같은 것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굴텐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도록 계속 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아다나 프나르 ㄱ회

- 무더운 아다나의 여름에 노화된 에어컨은 어떤 날은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매 주일 15명 정도가 모여 ㅇ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더 이상 ㄱ회에서 새 영혼들을 받아드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훌리아 자매가 이웃과 친척들에게 ㄱ회를 소개하여 ㄱ회에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주중에 그들의 동네를 방문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대 아이들도 많이 데려오는데 주일에는 못오게 하고 새신자들을 교육시키는 목요일에 오도록 권했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목요일에도 ㅅ경 공부와 ㅇ배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서 구원받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 지난 달에 말씀드렸던 이스탄불에서 이사온 한 사역자 가정이 7월 두번째 주일부터 ㄱ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견습 기간을 가진 후에 9월 말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월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부부와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2. 성도들의 개인 ㄱㄷ제목

- **수다베:** 집에서 발을 헛디뎈 손목에 금이 가고 이마가 찢어져 꿰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하여 ㅇ배와 ㄱ도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 **훌리아:** 아들의 군대가는 날이 몇달 늦추어졌습니다. 심방을 하였는데 집안에 차 끓이는 주전자나 찻잔도 없이 텅빈 시멘트 바닥에서 땀으로 이 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14살 딸과 엄마가 일하며 살아가는 길을 여시기를...
- **베히에:** 남편의 증세는 많이 좋아졌고 가끔 일을 나가기도 합니다. 베히에 자매는 아들과

함께 딸이 있는 반에 가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돌아오는 영적 여행이 될수 있기를...

- **술탄:** 일년 집세를 내야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가운데, 전화기까지 물에 빠트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정에 가도 부모님이 눈치를 해서 오직 주님 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술탄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 **시난:**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배에 나오도록...
- **갈립:** 주일에는 몇시간이나마 식당 일을 동생에게 맡기고 ○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 **잔, 말라핫 부부:** 심방하여 ○배하고 기도할 때에 말라핫의 손바닥 관절염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계속 방문하여 함께 ○배하고자 합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나올 수 있기를...

3.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7천명대로 떨어졌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델타 변종으로 인해 2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다시 실행될까봐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4. 전도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파는 젠기스 아저씨와 교사였다가 은퇴후 길거리 악사로 일하는 오스만 아저씨가 함께 ○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기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에 와서 허겁지겁 먹는 기쁨으로 나오시는데 계속 오셔서 ○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5. 아다나 기도의 집

수요 여성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은 영상으로 된 요한복음을 1장씩 본 후에 그 말씀을 읽고 설명해주며 기도하는 훈련을 하려는데 말씀이 충만한 기도가 되도록...

6.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저희 부부를 강건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두번 맞은 저희는 3번째 주사를 맞으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9월 말에 독일산 바아오엔테크 백신을 맞게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든 맡은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 딸(수잔)과 아들(스티븐)의 가정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배할 수 있도록...

김샘물, 하나 드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 8)